

## 제 97호 교수노조 1

한국에서 "교수노조기획추진단"이 설립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생소하던 "연봉제"가 운운 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시 새로운 개념이 지면에 떠오르는군요. 새시대 교수는 "돈 맛"도 알아야 하고 노조운동도 할 줄 알아야 할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 호에는 미국의 교수노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1. 미국교수노조의 현황

미국 4년제 공립대학으로서는 중부미시간대학이 가장 처음으로 1969년도에 교수노조를 결성하였습니다. 그 후 교수노조는 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번창했고 현재 국공립대의 삼분의 일 정도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2년제 대학까지 포함할 경우 60%의 국공립대학에 교수노조가 있습니다. 이 수치는 놀랍게도 노조에 가입된 미국 일반노동자의 43%나 미국대학 교직원의 40% 수치보다 훨씬 더 큽니다. 주(州) 노동법으로 모든 국공립대 교수가 노조에 등록하도록 되어있는 동부(메사추세츠, 메인, 뉴저지,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뉴욕 등)가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아예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 남부(플로리다주를 제외한 모든 남부 州)가 있습니다. 중서부와 서부는 주(州)정부가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대학이 개별적으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지역과 무관하게 대부분의 사립대 교수는 매니지먼트(전문관리에 속하며 고용인이 아니라 연방대법원 판결로 인해 노조를 결성하기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올해부터 사립대 교수노조에 대한 이해가 약간 달라졌기 때문에 사립대 교수노조 결성운동이 새로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수노조가 있는 대학은 (카네기 분류상) 교육중심대(Comprehensive와 Masters I, II)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연구중심대(Research와 Doctoral I, II)는 법적으로 해야만 하는 몇 대학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습니다. 미국에는 여러 단체가 교수노조를 대표하고 있는데 그 90%를 단 세 단체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규모는 NEA(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로서 46%를 차지하고 있고, AFT(American Federation of Teachers)는 32%, 그리고 AAUP(American Association of University Professors)는 11%를 이루고 있습니다.

### 2. 교수노조 결성 과정

앞서 언급했듯이 미국에는 각 주마다 노동법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 전체에 대해서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수노조결성 여부를 각 공립대학에 일임하는 미시간 주(州)의 경우를 소개합니다. 하지만 다른 주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어느 대학에서 총 교수의 30% 이상이 교수노조를 원한다고 서명을 하면 주(州)정부에 그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노조 찬반 비밀투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교수의 60% 이상 서명을 할 경우 대학당국은 투표를 하지 않고 곧 바로 노조 결성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비밀 투표를 하는 경우, 전체 교수의 과반수가 아니고 투표수의 과반수만 넘으면 교수노조가 결성됩니다. 이때

학과장을 비롯한 행정보직교수는 투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들은 일반교수가 아니고 소위 매니지먼트(관리직)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교수노조가 결성되면 교수가 노조에 가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노조에 가입한 교수만 노조 운영, 정책과 협상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반면, 교수노조와 대학당국이 타협한 내용은 모든 교수에게 적용됩니다. 그러니 자신의 의견을 반영시키려면 노조에 가입해야 합니다. 노조에 가입하지 않아도 노조회비는 내야합니다. 노조운영자금은 모든 교수로부터 각 교수의 연봉에 비례하는 회비로 충당하는 데 회비는 대개 연봉의 1%미만입니다. 교수노조가 결성되면 대학당국은 교수노조와 협상할 의무는 있지만 타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주정부 산하의 중재기관의 개입이 가능합니다. 가끔 교수들이 파업을 하고 수업 거부를 하기도 합니다. 실지로 올해 동부미시간대학 교수들은 시간강사 남용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이유로 파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협상이 무사히 순조롭게 이루어집니다.

교수노조의 최대 관심은 교수들의 경제적 이권과 권리입니다. 따라서 주요 협상권은 연봉, 혜택, 급여, 진급, 분쟁과 분규,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기준과 절 차를 명시하는 것입니다.

다음 호에는 교수노조의 장단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벽, 2000